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7, Vol. 22, No. 3, 337-354

사고-행동 융합이 여성의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및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지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여성의 성적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행동 융합 특성을 탐색하고, 침투사고에 대한 인지적 편파로 불안,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경로가 성적공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치심, 죄책감을 유발하는지와 성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부권에 거주하는 3, 40대 여성 15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알고, 상대적인 기여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덕성 융합은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과는 정적 상관, 성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성적공상의 빈도는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성 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은 죄책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예측변수는 도덕성 융합이었고, 성 태도는 타인 가능성 융합이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강박장애에만 국한해 사용되던 사고-행동 융합 개념을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적용하고, 그 하위 특성이 성적공상에서의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성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성적공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죄책감, 수치심과 관련한 개입 및 연구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고-행동 융합, 성적 공상, 죄책감, 수치심, 성 태도

† 교신저자 :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Tel : 041-730-5414 / E-mail : 1058@paran.com

사고 - 행동 융합(thought-action fusion: TAF)은 사고에 행동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잘못된 해석에 의해 사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하는 인지적 편파(cognitive bias)를 말한다(Rachman, 1993). 이는 처음에는 강박장애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Rachman, 1971; Salkovskis, 1989), 이후 왜곡된 인지적 평가와 강박장애 간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Rachman, Thordarson, Shafran, & Woody, 1995; Amir, Cashman, & Foa, 1997; Salkovskis et al., 2000). Rachman(1993, 1997)이 제시한 인지적 모델에 따르면 침투사고는 강박장애 발생 과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원치 않는 반복적인 사고, 심상 및 충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정상인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강박 증상이라 보지 않고, 임상적 수준의 강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자극으로 여겨진다(Salkovskis, 1985, 1989; Rachman, 1993, 1997). 즉 침투사고 자체가 아닌 그것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적절성에 따라 강박장애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왜곡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인지적 평가 중 하나로 확인된 것이 바로 사고 - 행동 융합이다(OCCWG, 1997). 사고의 존재만으로 그것의 중요성과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믿는 사고-행동 융합은 침투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책임감과 불편감을 증가시켜 사람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역기능적인 통제 방략을 사용하게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박사고를 증폭시킴으로써 강박장애에 기여한다(Freeston, & Ladouceur, 1997; Freeston, Rhéaume, & Ladouceur, 1996).

사고 - 행동 융합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면서, 강박장애가 아닌 다른 증상과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한 Berle과 Starcevic(2005)은 사고-행동 융합이 다른 불안장애나 우울증상, 섭식장애 및 심리장애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사고 - 행동 융합이 강박장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증상과의 연결성을 밝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침투사고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통제방략은 그 사고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Lee와 Kwon (2003)은 강박사고를 성적, 공격적, 신성 모독적 등의 생각을 포함하는 자생성 강박사고(autogenous obsessions)와 오염, 실수, 상실 등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는 반응성 강박사고(reactive obsessions)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책임감과 직면 방략으로 이어지는 반응성 강박사고와 달리, 자생성 강박사고는 사고의 중요성과 사고 통제가 높게 나타나며 더 많은 회피 전략을 이끌어낸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자생적 유형의 사고들 간에도 차이는 나타날 수 있는데, 하승수, 이한주, 권석만(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침투사고가 공격적 침투사고에 비해 도덕성 사고 - 행동 융합, 사고 통제, 회피 방략, 자책 방략의 사용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사고, 이미지, 공상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불쾌하고 부정적일 때뿐만 아니라 유쾌하고 긍정적일 때조차 그러한 사고를 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문영은, 진성오, 현명호, 2005에서 재인용). 이렇듯 성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진다. 이는 사고 - 행동 융합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특히 심할 것으로 추론되는데, 사고 자체가 자신에게 유해한 의

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성적 사고에 대한 왜곡된 해석은 다른 내용의 사고보다 더 쉽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Zimmer, Borchardt, & Fischle, 1983).

성적공상(sexual fantasy)은 성적 각성을 일으키는 모든 성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말한다(Rokach, 1990). 이는 개인의 성(sexuality)에 있어 정상적인 부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위 중이나 파트너와의 성행위 중 또는 평상시와 같은 상황에서 흔히 성적공상을 가진다(Leitenberg, & Henning, 1995; Davidson, & Hoffman, 1986). 일반적으로 성적공상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고 발달하여, 이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alt, & Boss, 2002).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적공상이 적절하게 기능할 경우 성적 욕구를 유지하고 성 만족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Coen, 1978), 이는 성 치료에서도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Newbury, Hayter, Wylie, & Riddell, 2012). 반면, 성적공상이 과도하고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강박사고에서부터 성 중독에 이르기까지도 한다(Cado, & Leitenberg, 1990). 또한 일부 성적공상은 다른 개인적, 환경적 요소들과 맞물렸을 때 자신과 타인에게 유해한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성도착증이나 성범죄 발생에 기여하게 된다(Leitenberg, & Henning, 1995). 한편, 과거 트라우마나 죄책감 등으로 인해 성적공상이 평균수준 이하로 적으면, 성기능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amuso, & Rellini, 2010; Leitenberg, & Henning, 1995). 이처럼 성적공상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통계적 관점에서 성적공상의 내용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Joyal, Cossette, & Lapierre, 2014). 이에 신나라, 송원영(2016)은 성적공상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스펙트럼 형식으로 두고, 공상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주관적인 불편감을 느낀다면 비정상적인 성적공상인 것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성적공상이 자신의 가치체계에 맞지 않고 타인과 사회로부터 지탄받을만한 해로운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일수록 성적공상에 저항적이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며(Zimmer, Borchardt, & Fischle, 1983; Davidson, & Hoffman, 1986), 이는 성적공상을 억누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부적응을 겪게 된다(Leitenberg, & Henning, 199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을 왜곡되게 해석할 때 개인은 불편감을 느끼게 되며, 보통 불편감을 낮추기 위해 생각을 억제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그 생각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어 또다시 불안과 불편감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Wegner, 1994; Freeston, & Ladouceur, 1997). 이렇듯 성적공상에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성적공상이 주는 즐거움과 성적 흥분마저 앗아가게 되므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방해하고 성기능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Leitenberg, & Henning, 1995; Reinisch, & Beasley, 2005).

사회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적공상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적공상의 빈도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은 반면, 불편감 측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세하다는 여러 연구결과로 드러난다(Leitenberg, & Henning, 1995; Gold, & Gold, 1991).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과 분리되기 어려워 성과 관련해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거나,

사회문화적인 관습이 여성의 성에 부정적인 가치를 투영하고 존재자체를 부인해왔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Leitenberg, & Henning, 1995). Strassberg와 Locker(1998)은 높은 죄책감을 지닌 여성들이 '성적으로 무력하게 제압당하는' 주제의 성적공상을 보고한 것에 대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성으로서 성적인 측면에서 부여받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의 역할로 두어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방략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가 자리 잡은 조선전기 이후로부터 여성의 성을 정결(貞)과 음란(淫)으로 이분하고, 정절에 대한 강요와 재가 금지 등 법적, 사회적 제재로 억압해온 역사가 있다(이숙인, 2001). 비록 현재까지 남아있는 법적 규제는 미미하나, 내면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면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백인 여성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 여성의 성 태도가 보수적이며 성적 죄책감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Woo, Brotto, & Gorzalka, 2010).

성 태도(sexual attitude)는 성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감정, 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과 도덕적 관념을 결부하는 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이춘재, 1996; 한내창, 2010). 가부장 사회 풍습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사회에서는 성을 폐쇄적이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여성들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Hunt, 1974; 이경옥, 2003). 이에 성 태도를 성적 욕망과 충동을 인정하는 정도, 다양한 성행동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개방적 또는 폐쇄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Wulf, Prentice, Hansum, Ferrar, & Spilka, 1984). 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는 성적 죄의식과 관련돼있으며 성생활의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성기능장애와 연관되기도 한다(이윤미, 이영호, 2008에서 재인용; Mecloski, 1976). Anderson과 Cyranowski (1995)는 오르가슴 장애가 있는 여성이 장애가 없는 여성보다 성행동에 대해 혐오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성 태도는 개인의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성행동의 기반이 된다(Mecloski, 1976; Derogatis, 1980). 또한 본능과 충동이 단독으로 영향을 미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회화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고화되면 쉽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Derogatis, 1980; 심희정, 1999). 그러므로 비교적 영속적인 성 태도와 사고-행동 융합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적 상태와의 관련성 이상으로 사고-행동 융합이 개인의 성적 불편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고-행동 융합은 도덕성 융합(moral fusion)과 가능성 융합(likelihood fusion)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도덕성 융합은 자신의 생각이 그에 상응하는 실제 행위와 도덕적으로 같다는 믿음으로, 예를 들어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부도덕하다'고 믿는 것이다. 가능성 융합은 자신의 생각이 그에 관한 실제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는 믿음으로, 사고의 주체가 '자신'인 자기 가능성 융합(likelihood fusion for self)과 '타인'인 타인 가능성 융합(likelihood for others)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내가 떨어져 다치는 생각을 하면 실

제로 내가 떨어져 다칠 것 같다'고 믿는 것은 자기 가능성 융합, '친구(혹은 친척)가 떨어져 다치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가 떨어져 다칠 것 같다'고 믿는 것은 타인 가능성 융합이다. Rachman과 Shafran(1999)은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믿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신의 도덕성에 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성 융합과 가능성 융합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개념적, 체계적인 차이가 있으므로(Berle, & Starcevic, 2005)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및 성 태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사고-행동 융합이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성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렇다면 사고-행동 융합의 하위요인별로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능성 융합은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만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편감이 생기고 유해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도덕성 융합은 자신의 부도덕한 생각에 도덕적 책임을 느껴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heaume et al., 1995; Berle, Starcevic, 2005). 따라서 가능성 융합은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 도덕성 융합은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과 연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성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 폐쇄적인 태도는 불만족스러운 커플관계 및 성생활, 성기능장애 등의 원인이 되므로, 본 연구는 그와 관련된 상담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 충청, 대전, 경남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연령은 30세 이상 50세 미만이다. 성적공상의 빈도와 성경험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Leitenberg와 Henning(1995)의 연구결과에 따라, 비교적 성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큰 20대와 점차 성관계 횟수가 감소해가는 50대 이상을 제외하고, 가장 성생활이 활발한 시기로 예상되는 3, 40대를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2016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스포츠센터, 소아과, 사회복지센터 등에 협조를 구해 조사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설문지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 실시하고 이후 수거하였다. 총 220부를 배부하였으나 201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에 충실하지 않아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47부를 제외한 154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83명(53.9%), 40대가 71명(46.1%)이었다. 학력은 대졸 80명(52.0%), 고졸 60명(39.0%), 대학원졸(석사) 11명(7.1%), 중졸 1명(0.6%), 무응답 2명(1.3%)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67명(43.7%), 기독교 39명(25.5%), 천주교 23명(15.0%), 불교 22명(14.4%), 기타 1명(0.7%), 무응답 1명(0.7%)이었다. 성 피해(성폭력, 성추행 등) 경험은 '있다'가 13명(8.5%), '없다'가 140명(90.9%), 무응답이 1명(0.6%)이었다.

측정도구

사고 - 행동융합 척도(Thought-Action Fusion Scale: TAFS)

사고 - 행동 융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Shafran et al.(1996)이 개발한 Thought Action Fusion Scale을 이순희(2000)가 번안하여 수정 및 역번역 과정을 거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이며 3개 요인이 확인되었는데, 도덕성 융합(moral fusion) 12문항, 자기 가능성 융합(likelihood fusion for self) 3문항, 타인 가능성 융합(likelihood fusion for others) 4문항으로 구성된다. 도덕성 융합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외설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를 실제로 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폭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폭력 행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용납할 수 없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기 가능성 융합은 '내가 떨어져서 다치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내가 떨어져서 다칠 것 같다', '내가 병드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내가 병들 것 같다', 타인 가능성 융합은 '친척(혹은 친구)이 직장을 잃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들이 직장을 잃을 것 같다', '친척(혹은 친구)이 병드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들이 병에 걸릴 것 같다' 등의 문항들로 평가된다.

이 척도는 사고와 실제 현실 간의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인지적으로 융합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각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행동 융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순희(200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문항에서 .92, 도덕성은 .92, 가능성은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전체문항에서 .94, 도덕성은 .93, 가능성은 .90으로 나타났다.

성인 여성용 성적공상 척도(Korean Sexual Fantasy Scale For Adult Female)

성인 여성의 성적공상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신나라, 송원영(2016)이 개발한 성인 여성용 성적공상 척도를 김수현, 송원영(2017)이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김수현, 송원영(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인 여성용 성적공상 척도는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성적공상에 대해 자신이 경험하는 빈도, 흥분감, 죄책감을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해 흥분감은 제외하고 수치심을 추가해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23문항으로, '나는 정력이 넘치고 매력적인 연하와 성관계하는 것을 상상한다', '파트너가 나로 인해 성적인 흥분/만족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한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빈도의 경우 '전혀 안 한다'는 1점, '한, 두 번 해본 적이 있다'는 2점, '가끔 한다'는 3점, '자주 한다'는 4점, '하루에 두, 세 번 이상 한다'는 5점으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죄책감과 수치심 또한 5단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점, '좀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2점, '가끔 느낀다'는 3점, '자주 느낀다'는 4점, '항상 느낀다'는 5점으로 채점하였다.

이 척도는 성적공상에 대한 빈도, 죄책감, 수치심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경험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현, 송원영(201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빈도에서 .93, 흥분감은 .95, 죄책감은 .94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빈도에서 .93, 죄책감은 .96, 수치심은 .96으로 나타났다.

성 태도 척도(Sexual Attitude Scale: SAS)

성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Hudson과 Murphy (1990)가 개발한 Sexual Attitude Scale을 이경옥(2003)이 번안 및 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경옥(2003)의 타당화 과정에서 문항 간 상관이 낮은 문항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문항을 제외시키고 13문항으로 조정되었다. 문항 내용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관계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사회질서가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성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각 문항들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13문항 모두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옥(2003)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고,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사고-행동 융합 척도, 성인 여성용 성적 공상 척도, 성 태도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사고-행동 융합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및 성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사고-행동 융합은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16, p<.05)을 보인 반면, 성 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28, p<.01)을 보였다. 사고-행동 융합의 하위요인인 도덕성 융합 역시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r=.16, p<.05)을 보인 반면, 성 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32, p<.01)을 보였다. 성적공상의 빈도는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r=.37, p<.01), 죄책감(r=.38, p<.01) 그리고 성 태도(r=.26,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은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r=.94, p<.01)을 보였다.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 성 태도의 표준중다회귀분석

먼저,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의 표준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준거변수인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과 도덕성 융합, 자기 가능성 융합, 타인 가능성 융합 세 개의 예측변수를 가지고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도덕성 융합은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을 유의하게 설명(t=3.863, p<.001)하고 있는 반면, 자기 가능성 융합과 타인 가능성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변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사고-행동 융합	-							
2. 도덕성 융합	.94**	-						
3. 자기 가능성 융합	.72**	.47**	-					
4. 타인 가능성 융합	.79**	.56**	.81**	-				
5. SF-빈도	-.06	-.14	.09	.08	-			
6. SF-수치심	.16*	.16*	.06	.13	.37**	-		
7. SF-죄책감	.08	.07	.03	.09	.38**	.94**	-	
8. 성 태도	-.28**	-.32**	-.92	-.15	.26**	-.14	-.13	-
평균	1.66	1.81	1.46	1.38	1.73	1.73	1.73	2.38
표준편차	.69	.80	.82	.76	.59	.82	.80	.43

*p<.05, **p<.01

주. SF-빈도(성적공상의 빈도), SF-수치심(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 SF-죄책감(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

표 2. 사고-행동 융합이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SE)	표준화 계수(β)	t	유의 확률	R^2
종속변수: 성적공상 수치심	(상수)	1.473	.293		5.022	.000	.282
	자기 가능성 융합	-.347	.193	-.322	-1.796	.078	
	타인 가능성 융합	.086	.249	.071	.347	.730	
	도덕성 융합	.714	.185	.562	3.863	.000	

융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융합은 준거변수인 성적공상 수치심의 총 변화량 중 28.2%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의 표준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준거변수인 성적공상 죄책감과 세 개의 예측변수를 가지고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도덕성 융합은 성적공상 죄책감을 유의하게 설명(t=3.749, p<.001)하고 있는 반면, 자기 가능성 융합과 타인 가능성 융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융합은 준거변수인 성적공상 수치심의 총 변화량 중 25.2%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 태도의 표준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준거변수인 성 태도와 세 개의 예측변수를 가지고 기여도와

표 3. 사고-행동 융합이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SE*)	표준화 계수(*β*)	*t*	유의 확률	R^2
종속변수: 성적공상 죄책감	(상수)	1.526	.307		4.964	.000	.252
	자기 가능성 융합	-.286	.202	-.258	-1.411	.164	
	타인 가능성 융합	-.005	.260	-.004	-.019	.985	
	도덕성 융합	.726	.194	.557	3.749	.000	

표 4. 사고-행동 융합이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SE*)	표준화 계수(*β*)	*t*	유의 확률	R^2
종속변수: 성 태도	(상수)	2.795	.135		20.712	.000	.178
	자기 가능성 융합	.144	.089	.310	1.615	.112	
	타인 가능성 융합	-.260	.114	-.495	-2.272	.027	
	도덕성 융합	-.080	.085	-.147	-.944	.349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타인 가능성 융합은 성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t=-2.272, $p<.05$)하고 있는 반면, 도덕성 융합과 타인 가능성 융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가능성 융합은 준거변수인 성적공상 수치심의 총 변화량 중 17.8%를 설명하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3,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 및 수치심과 성 태도, 사고-행동 융합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고-행동 융합의 하위요인인 도덕성 융합, 자기 가능성 융합, 타인 가능성 융합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에게 취약한 성 관련 문제를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적공상의 빈도는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성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성적 죄책감이 클수록 성적공상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려 노력하며, 이러한 사고 통제는 도리어 사고의 증폭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Wegner, 1994; Freeston, & Ladouceur, 1997; Leitenberg, & Henning, 1995에서 재인용). 또한 사고-행동 융합과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사고-행동 융합과 성 태도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덕성 융합은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도덕성 융합과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 간에 관련이 있으며, 도덕성 융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성적공상에 대해 더 많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한편 가능성 융합은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성적 사고가 다른 공격적, 반응적 사고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 융합을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하승수, 이한주, 권석만, 2005)와 유사한 결과이다.

수치심은 본능적 욕구에 따른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도덕적, 사회적으로 행동하게 하도록 기능하는 정서다(Schulman, Mekler, 1985; Eisenberg, 1986; Harris, 1989). 여기에 사고의 중요성을 과장하여 자신이 부도덕하다고 평가하게 만드는 도덕성 융합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측하자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적공상을 갖는 것은 보편적인 일로, 내용면에서 연인간의 친밀한 성행위 등 관습적인 공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금지된 주제의 공상이나 신체적 강압을 포함한 지배(submission), 복종(domination)적인 공상도 존재한다(Singer, 1966; Leitenberg, & Henning, 1995; Wilson, 2010). 이러한 비관습적 주제의 공상은 성도착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돼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비정상적, 일탈적인 공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Joyal et al.(2014)이 일반 성인에게 여러 성적공상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성적공상이 성별에 관계없이 통계 수치상 절반이 넘는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화되었을 때 도덕적 지탄을 받을만한 것일지라도, 공상의 주제가 되는 일은 흔한 경우이다.

Kanin(1982)은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강간당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성적 자극을 위해 강간공상을 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그들이 상상 속 행위는 통제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도덕성 융합 경향성이 큰 사람들은 일탈적 성적공상을 성생활에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는 침투사고에 대한 재난적 해석이 침투사고를 개인의 위협자극으로 만든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 된다(Clark, 1986). 결국 도덕성 융합이 공상을 더 이상 '현실의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게 함으로써, 자기비난적인 반응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개인적 가치체계에 어긋나는 공상 일수록 혐오스럽고 불편하게 느끼는 동시에 오히려 더 많이 떠오르게 된다는 주장에서, 도덕성 융합이 과도한 사람들이 성적공상에 대한 수치심을 스스로 완화하는 데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Cado, & Leitenberg, 1990; Follingstad, & Kimbrell, 1986).

둘째, 도덕성 융합은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는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이 가능성 융합과 연관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과는 다른 결과이다. 죄책감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유발되고, 복수의 공포를 포함한 감정이라는 점(Lewis, 1971; Burness, Moore, Bernard, & Fine, 1990)에서 가능성 융합 수준

이 높은 사람일수록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낄 것으로 추측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변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 변인을 단독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덕성 융합이 성적공상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러한 관련성이 나타난 배경과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곤란해질 법한 상황을 피하는 대처법에 대해 배우는 수준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김황수진, 2012). 여성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순결교육은 여성에게 실현하기 어려운 엄격한 성적 도덕기준을 형성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성 관계를 맺게 되며 다양하게 경험되는 성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성적 자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험은 수치심을 일으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면 관계불안, 이상성욕 등을 야기하며, 성과 관련된 문제를 억압하거나 방치하도록 만들 수 있다(도기숙, 2013). 따라서 우리사회는 여성의 성적 욕구와 행동을 인정하고 성에 관한 불안과 불편감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청소년 성교육과 성인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연구에서 성교육 내용이 성적공상에 대한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적 죄책감과 수치심에 더 취약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탐색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셋째,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측정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척도에 사용된 흥분감 대신 수치심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측정한 것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수렴-변별 타당도 등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더욱 관심을 두는 또 하나의 설명은 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적공상에 대해 느끼는 불편감을 대부분 죄책감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Tangney(1991)가 죄책감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을 보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즉 죄책감으로 인한 결과라고 여겼으나 사실은 수치심에 의해 나타났을 수 있다고 반론한 것이다. 이후 두 정서를 구분하고자 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죄책감과 수치심의 작동기제와 대처전략의 차이가 보고되어왔다(Piers & Singer, 1971; Lewis, 1971; Tangney, 1991; Ferguson, Stegge, & Damhuis, 1991).

현재까지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자기(self) 분화에 있다(Lewis, 1971, 1987; 송수민, 2007). Lewis(1971)는 죄책감의 경우 '잘못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에게는 초점이 거의 맞춰지지 않는 반면, 수치심은 '전반적인 자기(global self)'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기반을 둔 여러 선행연구에서(Tangney, 1991; Ferguson, Stegge, & Damhuis, 1991; 정미영, 정윤경, 2012), 죄책감은 사건의 원인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 사과, 보상 등을 행하고 나면 죄책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치심은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여 자기가치를 손상하기 때문에 사과행동 등으로 극

복하기 어렵고, 숨거나 도망치고 싶게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그동안 죄책감을 기준으로 설명된 결과들이 수치심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행동 융합 측면에서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만한 사건을 일으킨 데에 책임감, 불편감을 느끼는 가능성 융합은 죄책감과 연관되고, 자신의 생각에 도덕적 책임을 느껴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는 도덕적 융합은 수치심과 연관된다고 가정해보았다(Rheaume, Freeston, Dugas, Letarte, & Ladouceur, 1995; Berle, & Starcevic, 200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성과 관련한 사고, 공상, 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둘을 구분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타인 가능성 융합은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는 부정적인 성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 집단일수록 그와 반대되는 집단에 비해 성적 사고에 대한 인지적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한 하승수 등(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타인 가능성 융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폐쇄적인 성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가능성 융합은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이 피해를 입게 될 사건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유발하고, 책임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죄책감을 경험하게 한다(Berle, & Starcevic, 2005; Rachman et al., 1996). 따라서 타인 가능성 융합이 과도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성행동을 포함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한다고 믿고,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인해 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떠올리고 행동하는데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회피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척되면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나치게 개방적인 성의식은 오히려 성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여성의 성적 만족에 있어 솔직하고 성숙된 성 태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양희란(1993)은 여성의 성적 만족에 있어 개방적인 성 태도가 배우자의 지지나 성교 빈도를 제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성 태도는 성적 불만족,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홍식, 김진학, 유계준, 이호영, 1987; 이윤미, 이영호, 2008). 이처럼 폐쇄적인 성 태도가 성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준이라면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으로 다양하고, 이러한 변인들은 사고-행동 융합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Fehring, Cheever, German, & Philpot, 1998). 그러나 기질적, 생물학적인 변인은 치료적 개입의 초점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사고-행동 융합은 그 수준을 낮추면 성적공상에 대한 불편감을 완화시켜,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 태도를 갖추게 만듦으로써 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고-행동 융합은 그동안 강박장애 치료에서 개입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교육적 접근과 인지행동치료 접근이 가장 대표적이다. Zucker et al.(2002)은 침투사고가 정상적이며 생각과 발생가능성, 도덕성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대본을 읽게 하는 것만으로 불안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인지행동치료는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해석을 정확하고 사실적인 이해로 변화시켜 불안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으며, Rassin et al.(1999)이 유의한 치료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고-행동 융합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입이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고-행동 융합 수준을 낮추어 성적 수치심과 죄책감 및 폐쇄성을 낮추면 성기능장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고-행동 융합 개념을 성적공상과 성 태도라는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여 의미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적공상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과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커플 간 친밀감 문제나 성기능장애 등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적 접근에서 사고-행동 융합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3, 40대의 제한된 연령 내에서 표집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전 연령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을 갖는다.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 가치관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20대 집단이나, 보다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성적공상 빈도가 높지 않았던 바, 일반인이 아닌 임상집단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 여성용 성적공상 척도는 빈도, 흥분, 죄책감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것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흥분을 제외하고 수치심을 추가하여 척도의 일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타당도에 대한 제한을 갖는다. 또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응답자가 스스로 구분하여 보고했기 때문에 두 정서를 변별해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성적공상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하는 연구 및 이를 별도로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가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과 관련된 주제의 특성상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성적공상에 대한 문항에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설문지 구성 방식 등 솔직한 답변을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현, 송원영 (2017). 성인여성의 성적 공상 유형과 성만족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황수진 (2012). 순결교육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81-90.

도기숙 (2013). 성적 수치심의 담론. 헤세연구, 29, 229-249.

문영은, 진성오, 현명호 (2005). 강박장애환자와 성 범죄자의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39-155.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신나라, 송원영 (2016). 성인 여성용 성적공상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신나라, 송원영 (2016). 성적 공상의 양면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 장애, 범죄, 치료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339-351.

심희정 (1999). 청소년 성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희란(1993). 임신부인의 성 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경옥 (2003).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7), 39-58.

이숙인 (2001). '貞淫'과 '德色'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 5-32.

이윤미, 이영호 (2008). 기혼 여성의 오르가슴 장애유무와 유형에 따른 성태도 및 성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31-51.

이순희 (2000). 도덕적, 인과적 책임감 및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강박증상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춘재 (1996). 청소년심리학. 서울: 서원.

이홍식, 김진학, 유계준, 이호영 (1987). 기혼남녀의 성기능장애 빈도. 대한의학협회지, 30(9), 1017-1022.

정미영, 정윤경. (2012). 청소년의 귀인양식과 수치심 및 죄책감 경향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1), 152-152.

하승수, 이한주, 권석만 (2005). Cognitive Appraisals and Control Strategies on the Sexual Intrusive Thoughts.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71-789.

한내창 (2010). 종교와 성태도 간 관계. 한국사회학, 44(5), 114-138.

Anderson, B. L., & Cyranowski, J. M. (1995). Women's sexuality: Behaviors, respon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891-906.

Amir, N., Cashman, L., & Foa, E. B. (1997). Strategies of thought control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775-777.

Berle, D., & Starcevic, V. (2005). Thought-action fusion: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264-284.

Burness E., Moore M. D., Bernard D., & Fine, M. D. (1990). *Psychoanalytic term and concepts*. New Haven & London: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 Yale University Press.

Cado, S., & Leitenberg, H. (1990). Guilt reactions to sexual fantasies during intercour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9*, 49-63.

Camuso, J. & Rellini, A. H. (2010). Sexual fantasies and sexual arousal in women with a hist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25*(3), 275-288.

Clark, D. M. (1986). A cognitive approach to panic.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4*, 461-470.

Coen. J. (1978). Sexual interviewing, evaluation, and therapy: Psychoanalytic emphasis on the use of sexual fantas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7(3), 229-241.

Davidson, J. K., & Hoffman, L. E. (1986). Sexual fantasies and sexual satisfac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erotic though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2, 184-202.

Derogatis, L. R. (1980). Psychological assessment of psychosexual functioning.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 113-131.

Eisenberg, N. (1986). *Altruistic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Hilsdale, NJ: Erlbaum.

Fehring, R. J., Cheever, K. H., German, K., & Philpot, C. (1998). Religiosity and sexual activity among older adolescent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7(3)*, 229-248.

Ferguson, T. J., Stegge, H., & Damhuis, I.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guil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62*, 827-839.

Follingstad, D. R., & Kimbrell, C. D. (1986). Sex fantasies revisited: An expansion and further clarification of variables affecting sex fantasy produ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5(6)*, 475-486.

Freeston, M. H., Rhéaume, J., & Ladouceur, R. (1996). Correcting faulty appraisals of obsessional though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433-446.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7). What do patients do with their obsessive though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4), 335-348.

Gold, S. R., & Gold, R. G. (1991). Gender differences in first sexual fantasies. *Journal of Sex Education and Therapy, 17*, 207-216.

Harris, P. (1989). *Children and emoti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Blackwell: Oxford.

Hudson, W. W., & Murphy, G. J. (1990). *Sexual attitude scale.* Walmyr Publishing Co.

Hunt, M. (1974). *Sexual behavior in the seventies*. Chicago: Playboy Press.

Joyal C., Cossette, A., & Lapierre, V. (2014). What Exactly Is an Unusual Sexual Fantasy?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12*(2), 328-340.

Kanin, E. J. (1982). Female rape fantasies: A victimization study. *Victimology, 7*, 114-121.

Lee, H. J., & Kwon, S. M. (2003). Two different types of obsession: autogenous obsessions and reactive obsession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1*, 11-29.

Leitenberg, H., & Henning. K. (1995). Sexual Fantasy. *Psychological Bulletin, II7*(3), 469-496.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Lewis, H. B. (1987).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sdale: Lawrence Erlbaum Assciates.

Newbury, R., Hayter, M., Wylie, K. R., & Riddell, J. (2012). Sexual fantasy as a clinical intervention.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27*, 4, 358-371.

Malt, W., & Boss, S. (2002). Women's sexual fantasies, *People and People. 43*(4), 368-377.

Mecloski, J. C. (1976). How to make the most of baby image therapy. *Nursing, 76*, 68-72.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OCCWG) (1997). Cognitive assessmen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667-681.

Piers, G., & Singer, M. B. (1971). Shame and guilt: A psychoanalytic and cultural study. New York: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53)

Rachman, S. (1971). Obsessional rumination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9*, 225-238.

Rachman, S. (1993). Obsessions, responsibility, and

guil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1*, 149-154.

Rachman, S., Thordarson, D. S., Shafran, R., & Woody, S. R. (1995). Perceived responsibility: structure and significanc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779-784.

Rachman, S., Shafran, R., Mitchell, D., & Teachman, B. (1996). How to remain neutral: An experimental analysis of neutraliz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11),* 889-898.

Rachman, S. (1997).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9), 793-802.

Rachman, S., Shafran. R. (1999). Cognitive distortions: thought-action fus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6(2)*, 80-85.

Rassin, E., Merckelbach, H., Muris, P., & Spaan, V. (1999). Thought-action fusion as a causal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intr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3)*, 231-237.

Reinisch J. M., & Beasley R. (2005). 킨제이 보고서(이영식 역). 하서출판사. (원전은 2002년에 출판)

Rhéaume, J. Freeston, M. H.. Dugas, M. J.. Letarte, H., & Ladouceur, R. (1995) Perfectionism, responsib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7)*, 785-794.

Rokach, A. (1990). Content analysis of sexual fantasies of males and femal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4*, 427-436.

Salkovskis, P. M. (1985). Obsessional-compulsive problems: A cognitive-behavio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571-583.

Salkovskis, P. M. (1989). Cognitive-behavioral factors and the persistence of intrusive thoughts in obsessional problem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7*, 677-682.

Salkovskis, P. M., & Harrison, J. (1984). Abnormal and normal obsessions-A replicat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2*(5), 549-552.

Salkovskis, P. M., Wroe, A. L., Gledhill, A., Morrison, N., Forrester, E., Richards, C., Reynolds, M., & Thorpe, S. (2000). Responsibility attitudes and interpretations are characteristic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47-372.

Schulman, M., & Mekler, E. (1985). *Bringing up a moral child*. New York: Addison-Wesley.

Shafran, R., Thordarson, D. S., & Rachman, S. (1996). Thought-action fusion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0*, 379-391.

Singer, J. L. (1966). *Daydreaming*. New York: Random House.

Strassberg, D. S., & Locker. L. K. (1998). Force in Women's Sexual Fantasi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7(4)*, 403-414.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8-607.

Wegner, D. M. (1994). Ironic processes of mental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101*, 34-52.

Wilson, G. (2010). Measurement of Sex Fantasy.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3*(1), 45-55.

Woo, J. S., Brotto, L. A., & Gorzalka, B. B. (2010). The role of sexgui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women's sexual desire. *Archives Sex Behavior, 10*, 1007.

Wulf, J., Prentice, D., Hansum, D., Ferrar, A., & Spilka. B. (1984). Religiosity and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Evangelical Christian Single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6*, 2, 119-131.

Zimmer, D., Borchardt, E., & Fischle, C. (1983). Sexual fantasies of sexu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en and women: An empirical comparis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9*, 38-50.

Zucker, B. G., Craske, M. G., Barrios, V., & Holguin, M. (2002). Thought action fusion: can it be corrected?.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0,* 653-664.

1차원고접수 : 2017. 04. 23.
심사통과접수 : 2017. 08. 18.
최종원고접수 : 2017. 08. 29.

KCI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7, Vol. 22, No. 3, 337-354

The Effect of Thought-action Fusion on Women's Shame, Guilty with Sexual Fantasy and Sexual Attitude

Eunji Kim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Dept. Counseling & Psychotherap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ought-action fusion affecting sexual fantasies of adult women, and the path that causes anxiety and discomfort due to cognitive bias toward intrusive thought is applied equally in sexual fantasy, and to make sense of the possibility of causing shame, guilt, and to influence the formation of sexual attitude.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154 women in their 30s and 40s living in the central region of South Korea,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ach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al fusion was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ed with the shame on sexual fantasy, negative correlation with sexual attitude, and frequency of sexual fantasy was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ed with shame on sexual fantasy and guilt on sexual fantasy, and shame on sexual fantasy was positive correlated with guilt on sexual fantasies. Second, the meaningful predictive variable of the shame on sexual fantasy and guilt on sexual fantasy were moral fusion, and predictive variable of sexual attitude were likelihood fusion for other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concept of thought-action fusion, which is used only fo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o a wider range, and to empirically confirm how its subordinate characteristics affect shame, guilt with sexual fantasy and sexual attitude. The study also discussed inappropriate guilt and shame with sexual fantasy related to intervention and utilization of research.

Key words : thought-action fusion, sexual fantasy, shame, guilty, sexual attitude